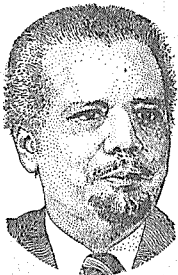


# 제 3차 석유위기는 올 것인가



압둘 자키 야마니  
(前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장관)

이 글은 지난 3월 1일 日本에서 야마니 前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장관과 日本의 에너지경제연구소실장인 下市 勉씨와의 석유정세전망에 대한 토론 개요를 정리한 것이다. <편집자주>

## 1. 당분간 국제유가 안정세 유지할듯

야마니 前사우디아라비아 석유장관은, '90년대 중반 경에는 세계의 石油수급이 팽박해져 제3차 석유위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지만, '92~'93년경까지는 공급과잉으로 인한 약세시장(Soft Market)이 계속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1) 단기 유가전망

최근의 石油시황은, 지난해 11월 OPEC(석유수출국 기구)가 감산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OPEC 평균가격으로 배럴당 15달러 수준까지 반등하고 있는데, 그 주된 원인은 美國의 휘발유 공급부족 사태에 있다고 보고 있다. 작년도 美國 쉘의 정유공장사고, 파업으로 인한 브라질의 對 美國 휘발유수출의 감소, 휘발유의 고품질화를 의무화시킨 환경규제의 강화 및 호경기로 인한 수요신장 등이 겹쳐 휘발유의 수급이 타이트하게 되었다. 게다가 작년 여름 이후 英國 北海유전에서 대형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원유생산이 20% 이상 감소하였다. 그 결과, 대서양 시장에서 브렌트나 WTI(西部텍사스産 中質油)등 경질원유의 공급이 부족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현재의 시황을 떠받치고 있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가격이 브렌트원유 기준으로 평균 14~14.50달러 선으로 하락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같은 전망의 근거로 야마니씨는 다음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첫째로, 6월의 OPEC 정례총회에서는 이란·이라크 양국이 생산쿼타의 확대를 요구할 것이다. 특히 이라크는, 현재 건설 중인 아라비아만도 횡단 파이프라인(능력 165만b/d)이 금년 9월 완성되면 수출량을 증가시킬 것이다. 파이프라인의 건설비를 石油로 지불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1~2개월은 시험적으로 사용하겠지만, 12월부터는 상당량의 수출을 개시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로, 英國 北海유전의 산유량도 6월경까지는 현재의 200만b/d에서 260만b/d로 회복될 것이며, 또한 노르웨이의 생산량도 작년말의 110만b/d에서 금년말에는 160만b/d로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셋째로, 지난 2월말 非OPEC 7개국(멕시코, 중국, 오만, 이집트, 北예멘, 말레이시아, 소련)은 제2/4분기에 수출량의 5%(약 30만b/d)를 삭감하여 시황회복에 협력할 것을 발표하였는데, 아마니씨에 따르면, 이것은 단순한 Showbusiness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노르웨이는 7.5%의 생산삭감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플러그동력에서의 삭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산량 자체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멕시코는 유전의 Maintenance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수출을 증가시키지 않은 것 뿐이다. 또한 北예멘도, 현재의 20만b/d의 생산을 계속하면 유층에 악영향을 초래한다고 하는 기술적 이유 때문에 수출삭감을 약속한 것이다. 英國, 노르웨이, 멕시코 등 대산유국이 상당한 감산을 행함으로써, 가격유지를 위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면 진실한 협조라고 말할 수 없다.

## (2) '92~'93년에는 수급 균형 이룰듯

이처럼, 아마니 前석유상은 현재와 같이 타이트한 상황이 향후 계속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 최대의 요인으로는 첫째로, OPEC와 非OPEC 사이에서, 石油매장량과 생산량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OPEC는 원유확인매장량에서는 세계의 75%('87년말)를 차지하고 있지만, 생산량에 있어서는 불과 32%밖에 점하고 있지 않다.

둘째로, OPEC 내에서 보면, 非만안 산유국은 거의 플러그동에 가까운 생산을 하고 있지만, 페르시아 만안 산유국들은 저가동력에 머무르고 있어, 매우 불공정한 상황이 있다. 따라서 페르시아만안 산유국은 공정한 생산세어를 확보할 때까지 증산을 강력하게 지향할 것이며, OPEC에서 결정한 국별 생산쿼터도 고정적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아랍에미리트는, 아부다비와 두바이의 정치적 대립 등의 이유로 항상 생산쿼터를 초과하여 증산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쿠웨이트도 아랍에미리트와 같은 생산수준을 요구, 증산에 가세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일부 가맹국의 증산으로 인하여 가격이 하락하면 사우디아라비아도 산유수입의 확보를 위하여

증산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페르시아 만안 산유국 사이에서는 증산의욕이 여전히 강하여, 향후 생산쿼터의 확대를 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작년 8월의 이라크·이란 휴전에 따라, 8년에 걸친 전쟁으로 파폐된 경제를 재건하기 위하여, 이라크·이라크 양국의 증산압력이 향후 더 한층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라크는, 이라크와의 전쟁 때문에 페르시아만에서의 石油수출이 불가능하게 되어 생산량을 억제하고 있었지만, 금년 9월 사우디를 경유하는 신설 파이프라인이 완성되고, 파오반도의 코르·알·아마야 및 알·바르크에서의 수출이 가능하게 되면, 수출능력은 비약적으로 확대된다. 이라크의 생산능력은 가까운 장래에 450만b/d까지 확대될 것이다. 이라크의 생산능력에 대해서도, 1년 이내에 400만b/d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350만b/d가 현실적 견해이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생산능력은 현재는 650만b/d 정도이지만, 얼마간의 투자로 현재 폐쇄 중인 유전을 재개한다면, 4~6주 사이에 750만b/d, 3개월 사이에 850만b/d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

한편, 非OPEC의 생산에 대해서는, 美國에서는 감소하고 있지만 노르웨이, 시리아, 앙골라, 北예멘 등에서는 증가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非OPEC 전체로서는 현재 정도의 가격이 계속되면 '92년경까지는 감소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최근의 石油수요에 대해서는, 대다수 전문가가 예상했던 것 보다도 높은 신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은 石油의 저가격으로 인하여 초래된 구조적인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점에서 본다면, '92~'93년의 石油수급은 상당히 균형을 이루게 될 것이다. 현재 OPEC의 산유능력은 2,500만b/d 정도이며, 향후 페르시아만안 산유국을 중심으로 능력확대가 계속될 것이므로 '92~'93년경에는 3,000만b/d에 가깝게 될 것이다. 그러나 OPEC 石油수요는 금후 매년 100만b/d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88년의 1,950만b/d에서 '92~'93년에는 2,400만b/d 정도로 된다.

OPEC에 있어서 재정수입의 필요상 최저한의 필요생산량은 수년 전에 2,100만b/d였으나, 이라크·이라크 휴전 후 현재는 2,400만b/d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OPEC 石油수요가 2,400만b/d에 달할 것

으로 예상되는 '92~'93년경이 되면 페르시아만안 산유국 및 베네수엘라는 저가격으로 인한 시장세어의 확대보다는 생산억제에 따른 가격인상을 지향하게 될 것이라 여겨진다. 이 때문에 유가는 '92~'93년경까지 현재 수준으로 추이한 후, 그 후에는 실질가격으로 상승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 이전이라도 주로 정치적, 재정적인 이유로, '87년의 18달러 고정가격제 도입처럼 가격인상이 단행될 가능성도 있다. 이란, 알제리와 같이, 당면 생산량을 대폭 증가하지 않은 국가는 고가격에 의해 산유수입의 증대를 꾀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우디도 재정과 경상수지의 대폭 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각종 정치적 압력에 따라 가격인상에 뛰어 들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현재의 공급과잉상태로 미루어 보아, 당장 고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가격은 매우 불안정한 변동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 2. 제3차 석유위기의 가능성

현재와 같은 유가의 약세가 계속된다면, 石油수요의 견실한 성장과 非OPEC의 산유량이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기 때문에, '92~'93년경에는 OPEC가 유가인상을 단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러나 石油은 다른 1차 상품과 달라서 경제적 요인만 가지고 생각할 수는 없다. 石油문제는 정치와 금융적 요소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 (1) 美·소의 石油문제

美國은 '86년의 유가폭락 이후 石油수요가 견실하게 증가되어 왔으며, 한편 국내의 생산은 감퇴를 계속하고 있다. 그 결과 美國의 石油수입은 '85년의 500만b/d에서 '88년에는 710만b/d에 달했으며, 이미 제1차 석유위기시의 630만b/d를 상회하고 제2차 석유위기시의 850만b/d에 접근하고 있다. 만일 향후 적절한 수입 삭감책이 취해지지 않으면, '95년에는 1,150만b/d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美國에 있어서 최대의 문제는 확고한 에너지 정책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美國의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말한다면, 휘발유세를 인상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그러나 증세에 대한 국민의 반발 및 産油洲와

非産油洲의 이해대립으로 그 정치적 실현에는 어려움이 있다. 석유수입 과징금의 도입은 더욱 곤란할 것이다. 만일 도입된다면, 美國제품의 생산코스트가 상승하여 日本 및 기타 국가와의 국제경쟁력이 상실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美·加 자유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캐나다를 제외하면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고 있는 멕시코도 제외하여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되며, 그렇게 되면 베네수엘라, 英國, 노르웨이 등도 대상에서 제외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실질적인 효과가 없어지게 된다.

한편 소련도, 국내의 원유생산이 한계점에 이르러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소련은 달러 획득을 위하여 서방세계에 약 200만b/d를 수출하고 있으며, 또한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코메콘 국가에도 약 200만b/d의 石油를 수출하고 있는데, 향후 그것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국내의 石油소비를 천연가스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사고의 영향도 있어, 石油수출을 증가시켜 나가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소련은 에너지 문제해결의 최후 수단으로써 페르시아만안 지역의 石油에 크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현재 소련과 우호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이라크는 오히려 서방세계에 기울어져 있는 상태이지만, 이란과는 최근 샬먼 루시디의 「악마의 시」문제 등도 있어 접근이 진행 중에 있다. 서방세계는 페르시아만안 지역의 힘의 균형이라는 견지에서 통일된 이란을 바라고 있지만, 소련은 다민족 국가인 이란을 분할함으로써 이란의 石油를 자국의 지배하에 두고자 하는 야심을 갖고 있다.

### (2) 石油과 머니의 관계

근년, 원유가격이 커다란 변동을 계속함에 따라 歐美 각국에서는 石油 선물시장이 급성장하여 왔다. 石油 선물시장은 처음에는 투기로써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석유회사에 있어서 Risk Hedge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의 OPEC 원유가격은 생산량이 미미한 美國의 WTI원유의 선물가격에 따라 매일 매일 커다란 영향을 받고 있어, 정상적인 상태라고는 말할 수 없다. 장차 OPEC가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면, NYMEX의 선물가격이 OPEC 원유가격을 따르게 될 것이다.

아무튼 최근 유가의 대폭적인 변동은 달러시세, 금리, 개발도상국의 누적채무문제 등 국제금융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현재와 같이 투기화된 세계경제 속에서는 석유와 머니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이같은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도 런던에 "Institute for Global Energy Studies"라고 하는 기관을 설립, 세계적인 시야에서 에너지문제를 연구해 나갈 것을 계획하고 있다.

### (3) 유가의 안정화 및 산유국·소비국 협력

경제적 뿐만이 아니라,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유가의 결정을 단기적인 수급관계에만 맡겨, 선물시장이 커다란 영향력을 갖도록 되어 있는 현상은 장기적인 시점에서 생각하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신규유전개발 및 대체에너지 개발에는 거액의 투자와 함께 7~10년의 오랜 리드타임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은 유가약세가 계속되면, 성에너지 및 에너지 개발투자가 정체되어, '90년대 중반에는 막대한 石油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페르시아만안 산유국과 베네수엘라가 石油시장을 다시 지배하게 되어, 제3차 석유위기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

과거 두 차례의 石油위기는 모두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 야기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하여야 할 것이다. 이 중, '73년의 제1차 석유위기는 정당한 것이었다고 확신하고 있다. 왜냐하면, 50년대, 60년대에 원유가격이 매우 낮게 억제되었기 때문에, 세계의 석유수요가 급속히 증가하여, '73~'74년의 유가급등을 초래하였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79년의 제2차 석유위기에 대해서는 가격을 인위적으로 너무 높게 인상, OPEC에게도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여겨진다.

90년대에 다시 석유위기가 일어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유가의 안정화가 필요불가결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이야말로 산유국과 소비국이 협력하여 유가의 관리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유가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산유국과 소비국 쌍방이 책임을 분담하고자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유가 안정화에 대해서는 최근 노르웨이에서 개최된 Energy Policy Conference 에서도 논의가 있었다. 이 회의에는 英國과 노르웨이의 에너지장관, 그리고 대형 석유회사의 최고 책임자도 참가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어

렵지만, 기본적으로는 유연한 가격결정방식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향후 7~10년 동안의 기간에 환경문제를 고려한 에너지 전체의 수급균형을 전제로, 산유국과 소비국 쌍방에서 가격설정 Formula를 강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단, 서방측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4년을 단위로 정권이 교체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 (4) 산유국의 하류부문 진출문제

최근 급속히 추진되고 있는 산유국의 하류부문에 대한 진출문제에 대해서는, 산유국으로서는 原油의 안정판로 확보문제와 연관되어 있으며, 소비국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안정공급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장래에는 石油수급이 타이트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산유국보다 소비국 편에 메리트가 크지 않을까 생각된다.

## 3. 代替에너지와 지구환경문제

'90년대에 점차 石油수급이 팽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代替에너지의 개발은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세계규모의 환경문제 같은 어려운 문제도 생겨나고 있다.

우선,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향후 에너지문제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천연가스는 石油에 비해 수송 코스트가 높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그 중요성이 다르다. 예를 들면 유럽에서는 소련, 노르웨이, 北 아프리카 등 주변지역에 풍부한 공급원이 많이 있어, 향후 가일층 중요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BP와 셸이 천연가스에서 합성 휘발유, 경유를 싸게 제조하는 등, 이른바 기술개발 면에서의 커다란 진보도 주목 할만한 것이다. 또한, 천연가스 가격에 대해서는, 西유럽 지역의 알제리 가스와 美國지역의 멕시코 가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유가에 연결되어 결정되게 될 것이다. 아무튼 천연가스의 이용·개발은 향후 유가를 안정시키는 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석탄에 대해서는 산성비 및 지구온실화 문제와 관련된 등 문제가 있다. 특히 화석연료 소비에 따라

는 세계적인 대기온도상승(Global Warming)에 대해서는, 꼭 장래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 네덜란드와 벨기에 등의 많은 도시가 해면 아래로 침수하게 되어, 우리세대 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와도 관련된 중대한 문제다.

원자력에 대해서는, 폐기처리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지만, 만일 향후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재평가 받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만일, 앞으로 다시 체르노빌 규모의 대형사고가 발생한다면 원자력 개발이 중지될 우려도 있다.

한편, 개발도상국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높은 에너지 수요증가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에너지 공급의 확보와 전세계 규모의 환경문제 양면에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맞게 될 것이다. 그 해결을 위해서는 썬에너지와 자연에너지의 개발이용에 힘을 기울임과 동시에 화석연료와 원자력의 이용에 일종의 규제를 가할 필요가 있는지도 모른다.

#### 4. 야마니씨의 견해에 대한 평가 및 코멘트

이상이, 향후의 石油정세 및 에너지문제에 대한 야마니씨의 견해인데, 이하에서는 이에 대한 필자의 간단한 평가와 코멘트를 기술하고 싶다.

①장기간 사우디 및 OPEC의 石油정책을 입안, 수행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였던 야마니씨는 현재 제 1선에서 물러나 있는 상태이지만, 石油정세 전반에 대하여 미세한 사실관계까지 매우 정통해 있었다. '86년 10월 말에 해임된 이래, 한때는 해외체류를 포함, 행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는 풍문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국제회의 등에 빈번히 참석하여 솔직한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현재에도 해외의 최고수준의 에너지관계자와 접촉이 빈번하며, 정보를 매우 잘 수집하고 있는 것 같다.

②야마니씨의 의견 중에는 石油정책이 경제적 요인만이 아니라, 그때 그때의 정치적 요인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사실에 대하여, 정책결정자와 정치가에 대한 강한 불신감 같은 것을 갖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예를 들면, 최근 非OPEC의 수출감축결정은 OPEC와 非OPEC의 협조로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필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단지 Showbusiness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하였다. 또한 그의 제3차 석유위기 도래설의 배경에는, 수급이 팽박화된다는 점과, 페르시아만안 산유국은 정치적 의도와 재정수입의 필요성 때문에 가격을 대폭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으로도 엿볼 수 있다.

③최근 미·소간에는 新데탕트 체제라고도 불리워질 수 있는 것 같은 관계개선 움직임이 있지만, 야마니씨는 소련의 中東석유에 대한 야심을 강조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소련군 철수를 계기로 소련은 적극적인 中東 서투의교를 시작하고 있으며, 사우디 내에서도 고르바초프 서기장에 대한 평가가 높아, 공산주의에 대한 알레르기도 약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야마니씨는 이같은 풍조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듯하다.

④향후의 石油정세에 대한 야마니씨의 견해는 최근 OPEC 사무국장인 스부로토씨가 일본경제신문 기자와의 회견에서 밝힌 의견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즉 앞으로도 石油수요가 순조롭게 증가하여 非OPEC의 원유생산이 한계에 도달하면, '92~'93년경에는 OPEC는 더 이상 국별 생산쿼타를 설정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90년대 중반경에 石油수급이 팽박해지고, 제3차 석유위기가 일어날 것인가의 여부를 가름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한 가지는 앞으로의 石油수요 동향이다. 금세기 중 석유위기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歐美의 에너지 전문가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데, 그 주요한 이유로서는 美國 경제 및 세계 경제가 최근처럼 높은 경제성장을 향후에도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는 사고방식이 배경에 있다. 또한, 石油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美國에서는 국가안전보장의 우려 및 재정적자삭감을 위하여 내년 이후, 휘발유증세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 石油수요의 신장도 감소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하여 석탄과 石油 등 화석연료 소비를 억제하려는 세력이 작용하고 있으며, 썬에너지 노력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따라서, 石油수요의 동향은 선진공업국의 경제성장, 에너지정책, 환경정책에 따라 매우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공급면에서는 현재와 같은 유가 수준이 계속되면, '90년대에 들어서면서 非OPEC의 생산이 한계에 부딪칠 가능성은 크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최근의 합리화 노력과 기술진보에 의한 산유 코스트의 하락이 현저하여, 만일 가격이 상승으로 전환되면 非OPEC의 생산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어 급속하게 非OPEC의 생산이 한계에 이를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생산코스트가 극히 낮은 中東지역에 막대한 자원이 편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세계의 石油공급에서 차지하는 페르시아만산 산유국의 비중이 향후 높아질 것은 당연할 것이다. 2000년에는 세계 석유수출의 75%를 회교국가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는 야마니씨의 지적은 어느 정도 과장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石油은 또다시 정치정세에 따라 크게 좌우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⑤ 아무튼 제3차 석유위기의 재도래를 경고하는 야마니씨의 배경에는 「에너지의 투자 사이클」이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50~'60년대의 石油 저가격이 에너지 투자를 정체시켜, '70년대의 석유위기로 이어지는 경제적 원인이 되었다. 반대로 '70

년대의 2차에 걸친 가격폭등이 '80년대의 공급과잉과 저가격을 초래하였으며, 현재의 저가격은 재차 90년대의 가격상승의 원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에너지의 투자 사이클」이 생기는 것은, 거액의 투자를 필요로 하는 石油와 대체에너지 개발에는 7~10년이란 오랜 리드타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투자사이클에 따른 유가의 급등과 급락의 반복은 산유국 및 소비국 쌍방에 바람직한 것은 아니므로, 양자의 협력이 불가격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야마니씨의 이같은 주장에는 필자도 전면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문제는 가격안정을 위한 구체적 방법안을 찾아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야마니씨는 장기적인 에너지수급을 기준으로 산유국과 소비국이 협력하여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Formula같은 것을 생각해 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매우 어렵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유가의 안정을 위해서 산유국과 소비국의 대화 및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같은 것이 석유위기의 발생가능성을 방지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 말의 힘 □

# 對 話

열린 마음으로 일정한 좁은 목적과 시간적인 제약에 사로잡힘이 없이 이야기를 주고 받으면서 다만 침을 지향하는 것이 본래적인 형태의 대화이다. 열린 대화를 통해서 인간의 지식의 주관적인 제약을 될 수 있는 대로 벗어나고 공동의 진리에 도달함으로써 그 객관성에 접근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나”의 이론과 주장이 불가피하게 주관적인 제약아래 있다는 것을 먼저 알고, “너”의 이론과 주장을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

대화는 삶을 가능하게 하고 또한 인간의 자아를 발견하게 한다. 인간은 참다운 대화를 통해서 “너”에 대

한 “나”를 발견한다. 그리고 참다운 대화를 통해서 나를 풍부하게 하고, 깊게 하고, 빛나게 한다. 대화로 말미암아 나는 존재한다.

인간의 영혼의 깊이와 삶의 진리는 이러한 참다운 대화에서 밝혀진다. 빛이 보이는 세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듯이 대화는 보이지 아니하는 내적인 세계의 깊이를 밝힌다. 볼노브(Bollnow)는 이렇게 말한다. “대화는 삶을 위한 참신한 힘을 가져온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을 낮의 피로움과 밤의 외로움에서 구출해서 늘 새롭게 하고 위로하는 삶의 원천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